

한국현대미술의 정황과 사례를 만나는

눈 밝은 비평가의 그물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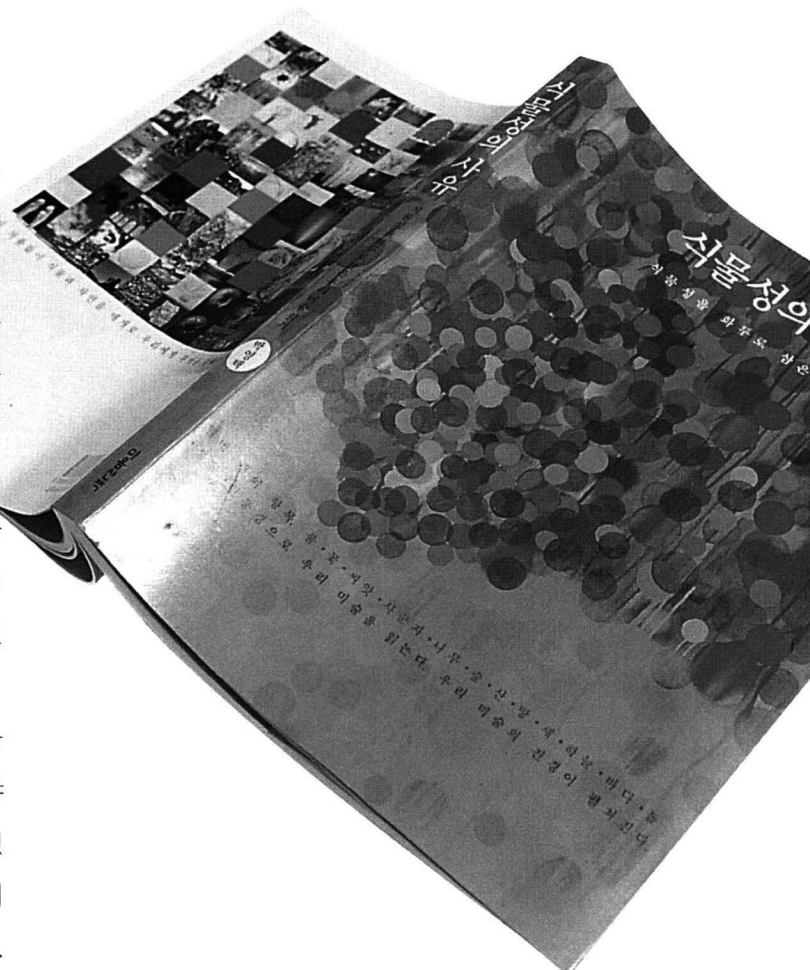


미, 술, 비, 평, 가, 박, 영, 택, 식, 물, 성, 의, 사, 유

《식물성의 사유》는 '우리 예술계에 어떤 코드가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박영택 고유의 의구와 관심에서 탄생한, 디지털 시대에 역행하는 살가운 비평집이자 에세이집이면서 하나의 페이지 퍼 미술관이다.

그는 우선 100명의 예술가 작품 104점을, 그것도 고전적인 작품과 실험적인 작품을 너나없이 섞어 들이밀면서 그 작품에 '식물성'이란 덧을 씌운다. 여기서의 덧이란 식물성에서 벗어난 작품은 일단 이 책의 사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하고, 식물성이 담보되었으면서 일정한 질을 담보하고 있는 작품은 사유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그의 덧에 걸린 작품은 박영택이 전하는 사유의 세례를 받아 더욱 빛난다. 말하자면 그가 식물성이란 화두와 함께 써내려간 《식물성의 사유》는 사진과 그림의 평면성, 설치미술의 공간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평면과 공간 밖의, 소설로 치면 행간의 의미를 읽어낸 기록으로 자리한다.

그는 이 기록의 앞머리에 <식물성을 생각한다>라는 박영택 나름의 식물성론을 배치했다. 이 식물성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글이 100명의 작품에 드러난 식물성을 설명하는 뚜렷한 원소元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주역>을 통해 '역易이란 끊임없는 생성', '천지의 특성은 생生'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장자의 '소요의 정신'과 유학의 온대 농경사고, 성리학의 격물치



《식물성의 사유》 박영택 지음 | 마음산책 | 316쪽 | 값 18,000원

지와 근사 정신을 통해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진실한 본체'라는 자연과 인간의 합일체를 설명한다. 그가 이같은 사유를 전개하는 저 끝에는 '인간의 운동 또는 인간의 운행방식은 원래 자연의 자기 조직적인 운행방식을 기억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자연의 운행방식과 같다고 여긴다'는 동양정신이 자리하고 있다. 동양정신이란, 물질과 마음을 따로 이야기하는 법이 없으며, 저자 자신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100명의 작품 104점에 대한 박영택의 사유는 이런 식물성론 아래 전개된다. 풀 꽃 씨앗 사군자·탈사군자 나무 숲 산 땅 새 하늘 바다 돌 정물 풍경·반풍경 등 10개로 분류된 식물성이 붓이나 카메라로 설명하지 못한 비의秘意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이기영의 <며꽃>을 감상하면서 '식물성의 세계는 고요하며 남에게 상처주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대목, '사실 꽃은 한순간 그저 아름다울 뿐 영원과는 거리가 먼 존재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꽃을 빼버리고 나면 세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꽃의 존재 이유를 규정하는 대목은 식물·인간·세상의 연 기緣起에 대한 그의 철학적 깊이가 얼마나 견고한가를 증명한다.

그의 비평가적 안목은 회화나 설치미술 조각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사진작가 주명덕의 작품 <경주>를 보면서 '주명덕의 사진은 사진 가까스로 우리들의 육체를 끌어당긴다'고 전제한 후 '언어화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진의 힘'이라고 사진의 본질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게다가 '사진이 찍는 것은 지금에 붙들려 있는 사진의 총체'라는 언술에 이르면 특정 예술 장르의 본질이 박영택 앞에 별거벗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 풀 나무 하늘 등 그가 식물성의 코드로 잡아낸 대상들의 낱말은 길어야 세 글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든 세상을 지탱시켜 주는 것은 사실 가볍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런 대상들이야말로 별다른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두 글자만으로 오랜 세월을 감당하며 자신의 이름을 지켜온 주체라는 것을 각인시킨다.

<식물성의 사유>는 이런 점 외에 식물성의 사유가 얼마나 광활한 별판을 거느리고 있는지, 그 별판이 박영택 앞에 얼마나 자신의 몸을 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그 까닭은 박영택의 동서양 역사에 대한 지식, 인문정신, 시적 상상력과 관찰력, 이 모든 것을 결합할 수 있는 산문정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가능케 하는 단서는 김수강의 작품 <팬티> 감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나른한 침묵과 공허, 부재의 안타까운 고백 같은 것

을 그 팬티의 피부를 통해 듣는다. 그 팬티는 누군가의 육체를 감싸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팬티는 육체를 그리워하며 본래의 부피와 체온, 내음과 수분을 기억해 내면서 뒤척인다. 무엇인가의 상실에서 오는 고독감으로 떨고 있다. ... 옷은 무엇보다도 인간 육체와 하나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의 육체가 빠져버린 이 텅 빈 옷의 고독은 모든 사물들의 고독을 말해주고 있다.'

박영택은 이 책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작가정신으로 실험을 거듭하고, 자신들의 작품에 새로운 정신의 옷을 입히는 작가들의 작품에 극진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저자 자신은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업들에 대한 머뭇거리는 고백, 창백한 중얼거림 같은 것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힘 없고 쇠락한 것들, 버려지고 소외된 것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고 온기를 채워주는 작가들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의 애정이 이 책에 가득 들어차 있다. 그는 이전 저작에서 작가 10명의 작업실을 일일이 취재해 고급한 탐방에세이 겸 작가인상기로 평가되는 <예술가로 산다는 것>을 냈었다. 그러니까 <식물성의 사유>는 그의 다음 저작이 어디로 연결될 것인가를 궁금케 하는, 또 다른 진경을 기대케 하는 사유의 집과 다름없다. 이 집은 인간과 식물성이 어떻게 합일하며 살 수 있는가를 곰곰 되씹게 하는, 입체적인 이미지이다.

박영택은 비평은 모든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 책에 묶인 작품들이 한국현대미술의 여러 정황과 사례들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그 자리를 위한 박영택의 식물성에 대한 촘촘한 그물코로 기능한다. ㉨

임동현 기자